

광주 김치축제 찾은 호주 의사 번 카라더스·비홍 로씨

“한국 전통과 맛 살린 김치축제 원더풀”



호주인 번 카라더스(왼쪽)씨와 비홍 로씨가 김치축제 마지막 날인 19일 김치담그기 체험을 하고 있다.

“김치축제를 통해 한국인들이 연령을 초월해 전통을 자키고 즐기는 것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19일 광주 시립 민속박물관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 김치축제장을 찾은 호주인 번 카라더스(83)·비홍 로(65·중국명 린미鳳)씨는 “다양한 김치 종류에 놀랐다”고 겨우 감탄했다. 이들은 호주 시드니에서 온 아동정신과 전문 의사들이다.

지난 1996년, 2001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 번째 방한한 카라더스씨의 김치와의 인연은 25년 전인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라더스 씨는 당시 대학신문에 홀스터이 광고를 내 한국 유학생 2명을 받아들였다. 유학생들은 시드니 한인 가게에서 구입한 김치를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다른 음식과 같이 넣어두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한 바람에 정원수 밑으로 김치를 길고 피난(?) 시켜야 했다.

카라더스 씨는 “김치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새롭고, 강하고, 독특했다”고 말했다.

“김치 종류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를 계기로 카라더스 씨는 김치 등 한국문화를 이해하게 됐고 ‘김치파동’의 주인공인 한국 유학생, 오병태(56) 호남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와 가족 같은 인연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

중국계인 비홍 로씨는 “지난해 처음으로 김치를 접했을 때는 맛이 이상했지만 지금은 먹을수록 더 좋아하게 됐다”며 “밥과 같이 먹을

때가 더 맛있다”고 덧붙였다.

카라더스씨 일행은 김치 오감박물관에 전시된 팔도김치 등 전시물을 꼼꼼히 살펴본 후 미리 준비된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 보는 김치 담그기 체험을 했다.

소쇄원 등 전남 전통문화 두루 체험

카라더스씨는 이젠 김치담을 수 있겠다는 질문에 “양념 배합하는 것이 염려스러워 차라리 시드니 한인 가게에서 사먹는 게 쉽겠다”며 활짝 웃었다.

카라더스씨 일행은 오 교수와 부인 이영애(52) 씨와 함께 17일 서을 가회동 및 북촌 현옥총, 경복궁·비원 등을 관광했으며 오 교수 집에 머물면서 소쇄원, 운주사, 선암사, 낙안읍성 등 전남지역의 전통문화를 두루 체험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정신과 전문의인 이들은 광주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선광학교를 방문할 계획이다. 카라더스씨는 시드니 의대를 졸업하고 평생을 정신박약 아동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

비홍 로씨는 “김치축제가 사람이 많으면서도 잘 조직화되고 질서 정연해 ‘동양적인 조용함’을 느꼈다”며 “한국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치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경찰청 보이스피싱 근절 통역요원 위촉식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호)은 지난 17일 청사 회의실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수사전문 중국어 통역요원 선발 위촉식을 가졌다.

광주은행-보성군 ‘금융지원 업무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최근 보성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단지 개발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제공)

“우리 부대는 구타·탈영 없어요”

광주경찰청 기동 8중대 4년간 ‘무사고 으뜸 부대’



광주 한 기동대가 4년 동안 ‘무사고 으뜸 부대’로 훌륭한 전·경의 부대로 부여음을 사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기동 8중대는 최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전·경의 경마를 페스티벌에서 경찰청이 선정한 으뜸 부대로 표장을 받았다.

교통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이 부대는 구타·자해·무단이탈 등 자체사고는 물론 시민들과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4년째 없었다.

이 부대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격려금 100만 원과 중대원 전원 ‘2박3일’의 특별외박을 포상받았다.

이 부대가 4년간 으뜸 부대로 뽑힌 숨은 비결은 선·후임 대원 사이에도 하루 2시간을 ‘서로 간접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 개인활동을 보장하는 것.

또 한 달에 한번 독후감을 쓰게 해 이 중 3명은 뽑아 시상하고 대원들 간 칭찬 립레이 운동도 별도로

있다.

기동 8중대 박정호 대장은 “후임 대원들이라고 해서 주눅 들지 않고, 120여명 모두 활기차게 생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이라며 “이번 표창이 묵묵히 현장에서 교통관리 활동을 벌이는 대원들에게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태왕사신기’ 커플 박성웅-신은정 결혼

드라마 ‘태왕사신기’에서 연인으로 출연했던 텔런트 박성웅(35)-신은정(34) 커플이 부부가 됐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강원도 흥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태왕사신기’ 출연진 등 동료와 팬들의 축하 속에 화촉을 밝혔다.

이들은 ‘태왕사신기’에서 주무치와 달비 역으로 출연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웅은 1997년 영화 ‘남버’로 데뷔한 후 영화 ‘무방비 도시’ 등에 출연했고, 신은정은 드라마 ‘강적들’과 영화 ‘두 얼굴의 여진’ 등에서 연기력을 선보였다.

롯데백화점 ‘결손노인 사랑의 대바자’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은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결손 노인을 위한 사랑의 대바자’를 열고, 해물파전·호박죽 등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제공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 광주정신 마라톤 하프 완주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이 19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 7회 광주 정신계승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석, 하프 코스를 완주했다.

전국에서 5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임 전

고검장은 이날 국립 5·18민주묘

지를 출발, 석곡동 사무소~제 4

수원지를 도는 하프 코스(21.975

km)에 출전해 1시간 49분의 기록

으로 완주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주 광주 남

포스팅을 기록한 후에는 하프 코스를 완주했다.

임 전 고검장은 “이번 대회가

민주·인권·평화 도시라는 광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주 광주 남

포스팅을 기록한 후에는 하프 코스를 완주했다.

임 전 고검장은 “이번 대회가

민주·인권·평화 도시라는 광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주 광주 남

“삶은 유동적 … 고마움을 나누자”

법정스님 가을철 법회 법문



“삶은 유동적입니다. 빙하고 별들 날이 꼭 있습니다. 고통이 끝없을 것이 라는 절망감에 빠져 도중하차하면 안 됩니다.”

법정(76·사진) 스님은 19일 서울 길상사에서 열린 가을철 정기법회 법문을 통해 최근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로 촉발된 자살 문제에 대해 “한때 고통에 갇혀더라도 누구든지 넘어져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정 스님은 매년 봄과 가을에 한 번씩 불교신자 이외의 일반 대중도 참

여하는 공개 법회를 열고 있으며 이날 법회에서는 길상사 극락전과 앞마당, 설법전 등이 약 800여 명의 신도로 가득찼다.

건강한 얼굴의 법정 스님은 “어려운 일이 낙차면 혼자서 해결하여 하지 말고 절이나 교회를 찾아가 집을 부려 놓으라”며 “질과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고, 중도에 하차하면 업(業)이 그 다음 생에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모집

▲수공예 전문 공방 ‘루치칸델라’ 수강생 모집=양초·천연비누·매듭·예쁜글씨, 광산구 월곡동 운남주공 9단지 입구 오페라힐링스 1층. 062-959-3252.

▲고영우·박미숙 댄스스포츠 스쿨 수강생 모집=회원 수시 모집, 동구 학동 병무청 앞 영동빌딩 303호. 062-526-8046.

▲동강뷰티아카데미 수강생 모집=북구 두암동 동강대 후문 앞, 피부·발·비만·체형 관리, 천연비누·천연화장품·취미 과정. 062-529-5005, 010-6355-9283.

▲(사)전남장애인재활협회 지회 모집=전남·시·군 지역(순천, 나주 제외), 복지분야 경험자로 덕망있는 자. 061-334-3636.

=‘보라 저 푸른 바다를! 오라 해군이여!’. 010-2673-6116.

▲광주여대 평생교육원 스피치기 법과 리더십 과정 모집=매주 목요일 7시~10시, 긴장해소·토론·프리젠테이션·이미지 등. 010-7304-5665.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의경·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사랑의 배움학교 문예 학과 정·자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한문반, 광산구 하남 성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부음

▲최병규씨 별세 한용(광주지방검찰청)·길용·경용·정희·정숙·정순씨 부친상 순절수습 빙부상=발인 21일(화)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송병학씨 별세 향숙·태원·태권·향림·향숙씨 부친상·부친상·부친상·부친상·부친상·발인 21일(화)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27-4314.

▲정래간씨 별세 친하(자영업)·대하(한겨레신문 기자)·근하(답양경찰서)·현주·미숙씨 부친상·최춘관·이진영씨 빙부상=발인 20일(월)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분 상무지구 예별루션웨딩컨벤션 2층 라벤더홀.

▲김원식(대전 중도일보 사장)·

김태옥씨 차남 혼중군 신현영·최민

숙씨 차녀 정아영=25일(토) 오후 5

시 대전 리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

동장·동문화

▲재광 전주신흥고 동문화(회장

김수곤)=22일(수) 오후 7시 용봉지

구 큰바다 해물탕. 062-515-3339,

011-648-4430(총무).

▲광주 대동고 13회 출업 20주년

(추진위원장 이형철·임현) 기념행

사=25일(토) 오후 7시 상무지구 조